



해양경찰청

보 도 자 료



대한민국 대전환
한국판뉴딜

보도 일시	2022. 6. 14.(화) 10:00	배포 일시	2022. 6. 14.(화) 10:00
담당 부서	해양오염방제국 기동방제과	책임자	과 장 김한규 (032-835-2094)
		담당자	계 장 김백제 (032-835-2196) (010-9755-1327)

해양경찰청 「환경·사회·투명 경영(ESG)」 체계 도입하여 해상화학사고에 대응한다!

- 환경·사회·투명 경영(ESG) 운영체계를 활용한 해상화학사고 대비·대응체계 개선 -

해양경찰청(청장 정봉훈)은 대규모 해상화학사고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 ‘환경·사회·투명 경영(ESG)’ 전략을 도입한 ‘해상화학사고 대응역량 강화 대책’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.

※ ESG : 환경(Environment), 사회(Social), 투명 경영(Governance)

최근 기후변화 위기, 친환경선박 보급확대에 따른 연료유 다변화로 화재, 폭발을 동반한 복합적·재난적 해양환경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해양경찰의 전문역량 향상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재난적 해상화학사고 총력 대비·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.

이에 최근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환경·사회·투명 경영(ESG) 운영 전략 체계를 도입하여 2019년 울산 스톨트그로이랜드호 등 과거 대형 해상화학사고를 재평가하고 화학사고 대비·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8개 추진 과제를 도출하였다.

주요내용은 ①전문교육 이수제 도입 등 해상화학사고 대비·대응 역량 고도화 ②복합해양사고 민관 공동대응체계 구축 등 방제협력 체계 구축 ③복합 해양재난사고 대응 전문조직 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방제정책

추진으로 해상화학사고 대응역량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.

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“환경·사회·투명 경영(ESG) 운영체계를 활용한 해상화학사고 대비·대응체계 개선으로 해양경찰의 사고대응 전문성을 높이고 민·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예방 및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.” 고 말했다.

